

대통령 댁

윤석열 대통령 부부, 美 핵잠수함(SSBN) 및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오후, 부산해군작전지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켈터킴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대통령은 7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켈터킴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켈터킴함 함장으로 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

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 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켈터킴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방영록을 작성하고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켈터킴함의 전개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것"



함에 근무하는 연합작전협조자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군작전사령부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We sail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도를 방위하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

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 항포로전투단과의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사, 인양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해상 작전 방문 전 미국의 핵잠수함 켈터킴함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켈터킴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평화는 가져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합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오늘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카라 아베르컴비(Cara Abercrombie)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Vipin Narang)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주한미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종현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작은영화관 중장기 발전 머리 맞대



전라남도는 작은영화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지난 20일 순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홍훈 한국작은영화관협회 이사장과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한 '전남의 작은영화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리 작은영화관기획전 사업단장은 "다양한 운영 주체의 등장으로 작은영화관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공공성영화관으로서 전남만의 문화가 이어지기 위해 남도만의 정체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6대 안전분야 맞춤형 교육 실시

경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관 방문교육 지원

경북도는 21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에서 철국군 다은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교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기관(시설)을 선정해 안전교육은 총 80회,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으로 경북도가 위촉한 재난안전민간강사 20명이 기관(시설)에 직접 방문해 강의하는 대면교육과 어린이 대상 도내 안전체험시설 방문을 지원하는 체험교육이 있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전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들이 안전을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자극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 '의정부시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민선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2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토론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의정부, 경기북부의 커다란 기회다. 그동안 경기남부와 북부는 다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하나의 묶임으로 인해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왔다.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시대의 큰 과업을 이루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영희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는 여야를 넘어선 경기북부의 지역의 미래와 관련한 사안인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 치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 들머리보기 ZOOM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Includes images of nature and food,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like YG and KITA.

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토론회 참석

김정영 위원장 “경기도 균형발전, 지역발전 위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수적”

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이 21일 의정부시에서 개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날 토론회에는 오석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석규 대진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오석규 경기도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장욱 연세대 교수, 조세희 의정부시의원(가나다순)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영 운영위원장은 “의정부는 실제로 수도권 규제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중앙정부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북부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시의 경우 반환 미군기지 부지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형 뉴딜사업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

어, 7월 18일 20명(국민의힘10, 더불어민주당10)의 위원 선임까지 완료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



최만식/기자

회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종합적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까지다.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전세보증금 회수 대안과 특별법 종료 이후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23.7.21.) 후 본회의 상정(‘23.7.28.)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 설립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25.5.31.)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사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이 최고가인 시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광동전세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의회의 이번 패키지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중진/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적인 재정 배분에 최선, 재정파수꾼 역할 다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체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청도)과 김용구 부위원장(상주)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원(구미), 김창기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 노성환 의원(고령), 박창욱 의원(봉화), 이동업 의원(포항), 이형식 의원(예천), 임기진 의원(비례), 정한석 의원(철곡), 최병근 의원(김천), 한창화 의원(포항), 황명강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예·결산분야에 전문성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태풍 한남도와 올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하여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하여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599억7천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했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한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쉽지 않았지만”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 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 서 벗어나 사정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했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결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의 미래 교육 발전 위한 방안 모색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 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충남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결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우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이 선도적으로 자율수강권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는데 정말 보기 좋다”며 “추가로 다자녀 지원기준 또한 현재 4명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각종 제출 자료의 통계적 오류나 오탈자 최소화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

황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고자료 양면 인쇄, 통학버스 이용 연한을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일부 과립학교는 급식실 공간 부족으로 10시 30분부터 점심 급식이 시작된다”며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교실 급식 등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고집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특수교육대상 방과후자율수강권 전자카드 결제 예산 증액을 통해 현실적 지원을 해달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진률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 설비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피해 신속 복구로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계방학을 이용해 각종 공사 기한을 잘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전남도의회, ‘공무원 보수 인상 건의안’ 채택

초과·야간 근무수당에 가산임금제 도입해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 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수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젊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대부터 40대까지 퇴직공무원 수는 2018년 6천39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 16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인상 이후 2021년 이후 3년 연속 1% 내외에 그쳤고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1%까지 하락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최근 몇 년간 보수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하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박봉에 주거 마련 등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지 않은 현실”이라며 “직급 간 보수격차를 고려해 내년도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야간근로 등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휴일,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엠지세대 공무원의 65%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공무원의 희생과 감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지표”라며 “정부의 현실적인 보수 인상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종배/기자

"아동 학대 막자" 서울 중구 아동행복센터 출범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상담실, 회의실, 원격 화상회의시스템 갖춰

서울 중구가 아동행복센터를 열고 학대 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구는 19일 중부교육지원청, 중부·남대문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행복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20건에 달한다.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간 구는 조사에 필요한 상담 공간과 회의실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중구청 별관 3층에 마련한 아동행복센터는 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공간과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온라인 회의는 구가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온통중구'를 활용한다.

피해 아동이 아동복지관 등 시설에

입소한 때에도 원격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고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구는 월 1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사례 판판회의', 아동의 보호 계획을 논의하는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공공연계 화상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아동학대 전용 신고전화, 녹취 장비, CCTV 분석 장비 등도 갖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아동행복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져 중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어린이 위한 EDM, 너버벌 퍼포먼스, 환경극까지...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공연 개최

이번 주말, 어린이클럽 유명DJ 초청해 동요·가요·춤 결합한 EDM 유치원 공연 8월 6일까지 매 주말마다 ▲환경극 ▲악기연주버블쇼·마임 등 퍼포먼스 ▲악기만들고 체험하는 어린이뮤지컬...볼거리·즐거거리 풍성



송파구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매 주말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공연들을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23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DJ공연 'EDM 유치원'(오후 2시/4시 총 4회)을 개최한다. 어린이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장르인 EDM을 동요, 가요, 춤, 율동과 결합해 신선하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어린이 클럽DJ로 유명한 DJ세포(SEFO)를 비롯하여 루프스테이션 퍼포먼스 아티스트 '로키(LOKI)', 드러밍 DJ '포이(POY)'가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극을 진행하는 국내 1호 환경 퍼포먼스그룹 '유상통 프로젝트'의 공연도 준비했다. ▲7월 29일, 30일에는 업사이클링 악기연주·버블쇼·뮤지컬·댄스·마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싸운드 서커스'(오후 2시 총 2회)가 펼쳐진다.

▲8월 5일, 6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공연소품으로 사용한 가족음악극이자 어린이뮤지컬 '별주부전'에 개편된 인어공주(오후 2시 총 2회)를 개최한다. 공연 말미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악기를 만들고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해 어린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 관람을 원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석촌호수 아뜰리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여름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영등포구, 쪽방주민과 노숙인쿨하게 살핀다...이동목욕서비스와쿨링포그큰 호응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여름철 폭염 보호대책 추진 중

영등포구가 쪽방 주민과 노숙인들의 여름철 위생과 건강 관리를 위해 쪽방촌 일대에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와 쿨링포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영등포구의 쪽방 주민은 416명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다. 노숙인은 323명으로 여름철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는 2012년부터 쪽방촌 일대에 샤워 시설이 설치된 특수차량을 주차시켜 목욕을 지원하고 있다. 시립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원활한 목욕서비스를 위해 근로자 채용, 차량 정비 등 철저히 준비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는 월~금요일(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앞에서 운영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목욕에 필요한 수건, 비누, 샴푸, 속옷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편 올해 6월 중순부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 신규 사업으로 쪽방촌 골목 4곳에 쿨링포그를 운영한다. 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미세한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냉방 장치로, 주변 온도를 3~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폭염 특보 발효 시 10시부터 18시까지 3분 작동 후 3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쿨링포그는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며, 쪽방 주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미세먼지 감소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폭염이 심해 집 밖에서 쿨링포그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라며 "쪽방촌에도 쿨링포그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성옥 생활보장과장은 "폭염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라며 "쪽방주민과 노숙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보호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대문구 자원봉사자, 충북 지역 수해 복구 활동 구슬땀

오는 25일, 특별재난지역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등 봉사 지속 예정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대문구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괴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괴산댐 월류 발생으로 262가구, 56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가옥·상가·농경지 침수 및 산사태 등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대문구는 신속하게 자원봉사자포털로 모집한 봉사자와 재난 현장 복구 경험 있는 관내 자원봉사자, 공무원 10명 등 총 40명 규모의 '수해복구 자원봉사단'을 꾸렸다.

이들은 폭우로 인해 쓸려온 폐비닐 수거, 망가진 고추밭둑 분류와 같은 각종 부유물 제거 작업 등 각종 수해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강모씨(서울 서대문구, 30대 남)는 "뉴스에서 수해 현장을 보고 난 후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비록 더운 날씨지만 하루 아침에 수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을 수 있다"고 봉사 소감을 말했다.

박상호 괴산면 청천리 이장은 "마을 주민이 대부분 어르신이라 복구 작업이 더딜 것이라 걱정했는데 많은 봉사자들이 오셔서 농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침수 가구 발생 등 괴산군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서대문구의 봉사활동으로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에도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다음주 25일(화)에는 이성현 구청장을 포함한 80여 명의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충남 부여군 수해지역을 방문해 농작물 수거 및 정비 등 복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N분 생활권...성동형 15분 도시 조성 박차

지난 19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주민 60명과 함께 '15분도시 아이디어 워크숍' 열어

서울 성동구는 지난 19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15분도시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 워크숍은 파리 소르본 대학 산하 기업가정신·지역·혁신 연구소(Chaire-ETI)가 개발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 바 있고 한국의 도시 중 성동구에서 최초로 개최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안 이달고(Anne Hidalgo) 현 파리시장의 15분도시 프로젝트로, 이를 자문한 카를로스 모레노 소르본 대학 교수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균형을 이루며 섞여 살며 사회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반에서 그가 세계 최초로 개편화한 15분 도시는 개인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이다. 즉 생활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이날 행사는 약 60명의 주민과 마을활동가, 시·구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모레노 교수의 영상 축하 인사와 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한승훈 도시디자이너의 도시 근접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4인

1조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도시나 지방 혹은 이웃 수준의 환경에서 가상 인물인 페르소나의 공간적, 시간적 차원 일상을 분석했다. 그룹별로 협업하며 '15분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주거, 건강,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커다란 종이에 페르소나의 일상을 기록해나갔다. 이를 통해 일상 활동이 근접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기 카드를 활용하여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진행했다.

성동구는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를 인종이나 소득,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부터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정 슬로건으로 채택해 스마트 기술을 통해 모두가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쉼터이다.

더불어 2022년 5월에 성동구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 전반을 아울러 2040년 성동도시발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담아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이 지난 10년간 성동구의 변화를 돌아보고 워크숍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N분 거리에 닿을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기회소득 첫 수령자 만남 김동연 “경기도를 문화의 도(道)로 만들 것”

7월 18일 조례 공포. 소득 확인된 5개 시 238명에게 각 75만 원씩 첫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회소득'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지 20여 일만으로 도는 올해 9천여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 238명 가운데 7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는 기회소득의 첫 번째로 예술인들을 선정했다"라며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문화의 도(道)로 만들고 싶다. 1천400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문화예술이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덧붙였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요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7~8월, 10~12월)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

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9천여 명이 대상이다.

6월 말 파주시 등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조례가 통과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7~8월 중 1차 지급을,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조사 등이 완료된 인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첫날인 20일 파주, 안양, 군포, 의왕, 포천시 등 5개 시 총 238명에게 각 75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이날 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7명은 파주, 안양, 군포, 의왕시 거주자로 1958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음악, 연극,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다.

이날 참석한 권경애 씨(한국화 작품 활동)는 "40년 동안 예술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지원)이 없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저희 예술인들한테 골고루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돈 몇만 원씩 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희 씨(극단 대표)는 "연극학부를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극단도 운영하고 연극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뭔가 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금액과 상관없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뿌듯하다. 감동받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참석 예술인들이 작품 전시, 공연 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자, 김동연 지사는 "오늘 키워드는 기회회요"라며 초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이 기회소득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19일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들을 만나 건강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전달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7월 5~14일 접수 기간 2천 명 모집에 9천817명이 신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 활동여부가 확인되는 7월 말쯤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만식/기자

고양시 청년 농업인 무인양품과 협업...스타필드 진출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가와지쌀 현미칩·꿀 4종 블랜딩 꽃차 판매

고양특례시 청년 농업인이 무인양품과 협업해 고양 스타필드에 진출했다.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일산쌀, 선우벌꿀, 꽃바림농원 총 3명의 청년 농업인이 참여한다.

고양시4-H연합회는 고양 스타필드에 있는 무인양품과 협업해 청년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했다. 무인양품이 고양 지역의 착한농부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간을 제공하면 청년 농업인이 참가하여 물건을 판매한다. 청년 농업인이 정직하게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은 고양스타필드 지하 1층 무인양품에서 만날 수 있다.

일산쌀은 지역특산물인 가와지쌀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일산쌀은 친환경 가와지쌀과 가와지쌀을 활용한 현미칩을 판매한다.

선우벌꿀은 고양에서 2대째 양봉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아생화, 아카시아, 벌꿀, 밤꽃 등 4종의 꿀

을 판매한다.

꽃바림농원은 식용꽃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여러 가지 블랜딩 꽃차를 판매한다.

고양시4-H연합회는 40여명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회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희 고양시4-H연합회 회장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라며 "고양시의 청년 농업인들이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다양한 특화상품을 만들어 고양시 영농산업의 저변을 넓혀준 청년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화성시, 대한민국 1등 Think Tank '화성시연구원'개원

21일 화성시연구원 개원식 및 심포지엄 개최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 개원식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21일 동안 소재 NH인큐베이팅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정영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연구원은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앞으로 ▲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 ▲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 활동 수행 ▲ 국

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외부에 의존하던 연구용역 비중을 낮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원식에서는 화성시연구원의 추진 경과보고, 화성시 연구원이 나아갈 길에 대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의 강연과 개원 기념 현판제막식 등 기념촬영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신원부 경제사회실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 패널 5인과 함께 화성특례시와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정영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연구원이 화성시의 미래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씽크탱크(Think Tank)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 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한다

'밤(夜)길이 안전한 밤(粟)밭마을 조성사업'

수원시가 울천동에서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CPTED)을 추진한다.

울천동 성균관대역 일대에서 추진되는 '밤(夜)길이 안전한 밤(粟)밭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의 조명과 조경을 다시 배치하거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CPTED(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마을 환경과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울천동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울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 경찰 등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디자인 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21일에는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

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를 작성했다.

앞으로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 이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선정' 등을 주제로 사업추진협의체 워크숍을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밤(夜)길이 안전한 밤(粟)밭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 경기도 특별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수원시 도시 PD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는 "사업추진협의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은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결속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2023용인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개막식 개최



대한민국 최정상급 실업육상선수들이 용인특례시에 모여 3일 동안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친다.

용인특례시는 2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3용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대회' 개최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육상 관계자 및 선수단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용인특례시청 소속 우수육상 선수는 경기장을 찾아 동료와 학생 선수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

21일부터 23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려

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대회에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육상의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600명의 학생 선수들도 선배들의 경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부상 없이 그동안 쌓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경기도육상연맹과 용인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전라북도 익산시와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열린 'KTFL 시리즈 대회'와 '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라 출전권을 획득한 350여 명의 실업선수가 참가한다. 대회의 모든 경기는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진

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는 '문체부장관기 제44회 전국시도대항 경기도선발전'과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도 함께 진행, 학생선수 6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선보인다.

김영래 한국실업육상연맹회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는 용인특례시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최고의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풍성한 기록을 올려 한국 육상의 수준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일부터 23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대회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온라인(유튜브 채널 iTOP21sports)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최만식/기자

인천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철도 사면,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인천광역시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사전점검에 나섰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을 사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인천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 김준성 시 교통국장이 관내 도로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등을 살폈다.

지하차도와 도로 철도 사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

지하차도의 사전통제는 수위가 0.3m에 도달하는 경우 진입을 통제한다. 그러

나 인천시는 최근 호우특보 시 지역별 강우량과 침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통제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렸다.

아울러 인천시는 기상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등 개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새로운 등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을 물론, 재해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와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남/기자



시흥시, 포럼 통해 대학과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논의

시흥시는 지역의 혁신거점인 대학과 함께 '푸드테크 산업과 먹거리의 미래, 대학과 도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12차 대학과 도시 포럼'을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시는 대학 등 지역의 혁신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의 균형발전 및 종합적 미래발전 방안 구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대학과 도시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 한국푸드테크협회 공동회장인 이기원 교수(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푸드테크학과)의 주제 발표에 이어, 조남준 싱가포르南洋대학교 석좌교수와 목승환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기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푸드

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산업 생태계' 설명과 함께 국내외의 대표 기업 사례를 들면서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향후 많은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남준 석좌교수는 싱가포르의 푸드테크 선진 사례를 소개하며 미래 산업으로서의 푸드테크 산업 미래 가치를 알렸다. 이어 목승환 대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푸드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도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한편, 다음 13차 포럼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관광 도시'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6일 18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사전 공연 및 청중과의 대화 등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제2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여성기업주간 맞아 경기남부여성기업인 한자리에

경기도, 21일 2023년 여성기업 주간의 날을 맞아 '제2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 행사 개최



경기남부지역 여성기업인들의 화합과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가 21일 수원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2023 여성기업 주간의 날을 맞아 경기도 주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

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연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학영 국회의원,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방세환 광주시장, 신계용 과천시시장,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여성 경제·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고양 소노캄호텔에서 경기북부 여성 기업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남부지역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

이 자리에서는 총 20명의 모범 여성 기업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주)시온도장도로 이영숙 대표이사 ▲나라컴퍼니 서성석 대표이사 ▲신화엘리베이터(주) 염운전 대표이사 등 3

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참석자들은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전시전에는 총 20개 기업이 참가해 홍보부스에서 우수 제품을 홍보했고, 도내 31개 시군·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 39개 사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여성기업 공공구매 간담회, 창업·경영전략·마케팅 등 기업경영 애로 상담회가 함께 진행됐다.

오는 23일까지 수원역 2층 역사에서는 40개 사가 참여해 우수여성기업 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연태영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기업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여성

기업 홍보·판로 지원,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여성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도 여성기업의 체계적 지원 방향 설정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여성 경제인대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1차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여성기업 지원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기업 전시전은 행사종료 후 홍보부스를 이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층)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성남시 중소기업 유망브랜드 마켓 남다른상점 '인기만점'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현대백화점(판교점)에서 식품·패션잡화 등 성남시@企 판로 위한 팝업 스토어 성료

성남시 중소기업 유망브랜드 마켓 '남다른상점'이 삶의 질 수직상승템을 선보이며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남다른상점은 성남시와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가 힘을 모은 협력사업으로 성남시 중소기업 유망브랜드 마켓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품, 뷰티, 생활리빙, 패션 등 30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특히 삶의 질 수직상승템과 건강한 먹거리를 대거 선보이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의료용 실리콘을 원료로 체형에 딱 맞도록 설계된 반응형 여성속옷인 '메디실리'와 수분보충파타가 별도로 구분

되어 있어서 전자렌지를 사용해도 촉촉한 수분감을 유지해 주는 주방용기인 '아쿠아웨이브'가 이목을 끌었다.

프리미엄 과채류 가공식품을 선보인 '살롱드룩'과 저당·저칼로리 디저트로 승부한 '꼬랑지마카롱', 천연과일을 함유한 수제 아이스크림 '아이팝씨클' 등 맛과 건강을 갖춘 먹거리를 사러온 고객들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7일 동안 1억 4천여 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또한, 백화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인기를 끌었다.

개그맨 홍록기, 배우 강예빈, 분따(분당, 판교, 위례 따라잡기) 대표 박은정, 인플루언서 최라벨 등의 셀럽들이 남다

른상점 기간 중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으며 시청 4만 8,000여 명, 좋아요(하트)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성남시 유망브랜드 마켓 '남다른상점'은 오는 11월에 또 한 차례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 학술심포지엄 개최

최대호 안양시장 "문화재, 주변 상권 상생 방안 마련...시민 적극 참여해주시길"

안양시는 오는 25일 오후 2~5시까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안양지역 대부분이 속해있던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사이면으로 통합되면서 사이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관청이다.

구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공공시설 중 전통 한옥을 신축해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로 건축적 가치가 인정받아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에 지정됐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서이면사무소의 친일 잔재 논란,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문화재의 가치 및 보존에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2016년, 2020년 두 차례 문화재 해제, 이전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구서이면사무소가 가지는 역사성, 장소성, 건축학적 가치로 이를 부결했다.

시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문화재를 활용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술심포지엄은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3개 주제는 ▲공공기념물로서의 구서이면사무소(국사편찬위원회 김민철) ▲구서이면사무소의 도시건축적 지선(대전대학교 백유정) ▲문화재 정책 경향과 구서이면사무소 보존·활용(안양

대학교 류호철)이다.

종합토론에는 대림대학교 이지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홍성수 전 신원대학교 교수, 임동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참여해 역사적 가치, 건축적 특성,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문화재인 구서이면사무소와 주변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심포지엄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안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편, 구서이면사무소는 원래 현재의 호계도서관 부근인 호계리에 세워졌으나, 1917년 안양리인 지금의 안양동 674-271번지로 옮겨졌고, 사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됨에 따라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됐다.

신우용/기자



2023 안양 학술심포지엄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

2023. 7. 25. (화)
14:00-17:00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

프로그램

주제 1
공공기념물로서의 구서이면사무소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표 김민철(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장 신(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2
구서이면사무소의 도시건축적 지선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발표 백유정(대전대학교)
토론 홍성수(신원대학교)

주제 3
문화재 정책 경향과 구서이면사무소 보존-활용
발표 류호철(안양대학교)
토론 임동민(고려대학교)
종합토론 좌장 이지원(대림대학교)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최소화

경상북도는 지난 17일(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금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택시 요금 조정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조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33초→31초)로 단축하고,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되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해,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

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2208원/MJ(4.18%인상), ▲구미권역은 2.2212원/MJ(4.98%인상), ▲경주권역은 2.1602원/MJ(2.24%인상), ▲안동권역은 2.5938원/MJ(3.64%인상)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자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비용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5,240원(250원 인상), ▲구미권역은 55,450원(300원 인상), ▲경주권역은 55,220원(140원 인상), ▲안동권역은 57,170

원(290원 인상)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타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인상율은 충북 평균 ↑6.2%, 경남 평균 ↑5.4%가 더 높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 달성으로 사업비 2.5억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하계 유도 전지훈련 유치

오도창 영양군수,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유도 유망주들이 영양군에서 24일 오늘부터 12일 간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는 하계 전지훈련에 참여한다.

2023 하계 유도전지훈련은 오늘 24(월)부터 28(금)까지 유도 20개팀 301명이 참여하는 1차 훈련,

31(월)부터 8.4(금)까지 21개팀 215명이 참여하는 2차 훈련으로 운영된다.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영양군민회관은 인근에 119 안전센터가 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운동

장, 볼링장, 헬스장 등의 체육 인프라를 갖추었다.

영양군은 이번 하계 전지훈련을 통해 영양군이 유도 전지훈련 메카로 이미지를 굳히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영양군을 찾아주신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입주주민 등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리비 부과 적정성을 위해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최소·평균 관리비 고지

대구광역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1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의무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

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



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범시민유치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 개최

지난 21일, 향토기업인 세정그룹 등이 기부금 3억 원 쾌척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등 참석해

기부금 전액 범시민유치위 전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홍보에 사용돼

부산시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시청 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함현중 (주)세정 대표이사, 김송우 (주)세정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전달식은 향토기업인 세정그룹, (주)세정, (주)세정아이앤씨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을 위해 마련됐고, 이들 기업이 마련한 기부금은 총 3억 원이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민을 대표해 지역기업 3곳의 기부금을 직접 전달받고, 기부에 참여한 기업 대표,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엔 전달받은 기부금 3억 원은 전액 범시민유치위에 전달돼,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시·국립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홍보 '총력전'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4개

월여 앞두고, 우리시와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향토기업인 세정그룹 등에서 지지와 후원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우리시는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식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와 정부, 국민 모

두 한마음이 돼 2030세계박람회 유치 1~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그리고 전방위적인 유치교섭·홍보 활동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현지실사단 등에 뜨거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송중진/기자



안동지역 기관장 모임 '동맥회', 시에 수재의연금 전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 전달

권기창 안동시장,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안동지역 주요 기관장 모임인 '동맥회'는 안동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수재의연금을 지난 19일, 안동시에 전달했다.

'동맥회'는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모임으로, 권기창 안동시장도 구성원의 일원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를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전달받은 수재의연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태주 동맥회장(국립안동대학교 총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냈다"라며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동맥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우리 시에서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윤경희 청송군수, 복구 작업 현장 직접 찾아 격려

윤경희 청송군수 "장비투입 어려운 곳의 신속 복구를 위해 직원들을 투입, 복구지원하며, 특히 복구 작업중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 강조

청송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는 수해복구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작업을 펼쳤다.

특히 지난 21일 진보면 후평1리, 이촌1리, 후천리 일대의 주민생활 밀접공간 피해현장에는 군청 공무원 30여 명

과 함께 윤경희 청송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침수주택과 주거지 주변 토사제거, 마을 공공시설 복구 작업에 손수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비 투입이 어려운 주택, 마을 공공시설 등 주민 생활 밀접 공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나서게 되었다."며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임한 직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복구 작업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청송군에서는 공무원 이외에도 여러 지역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제11기 수료식 개최

지역 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한 번에 잡았다 2013년부터 11년간 742명 양성, 취업대상자 중 88.1% 취업 성과

경북도는 지난 21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제11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차순애 경북도 청년정책과장, 이정곤 경북수출기업협회장, 이상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 수료생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11기 수료생들은 지난 6월 온라인 무역기초 교육에 이어 4주간 무역이론, 무역영어, 시장분석 수출시물레이션 등 총 206시간의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또 외국어 집중 훈련을 위한 합숙교육 및 취업스킬, 산업현장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4주간 충실한 교육에 임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해외마케팅경진대회 우수 2개 팀과 개인모범상 6명 등을 시상해, 이들에게는 국내·외 무역현장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수료 후에도 국내 주요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연계해 체험형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및 수료생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한편,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2013년부터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표 청년 무역전문 인력양성 과정이다.

지난 11년간 742명의 글로벌 무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대상자 447명 중 88.1%인 394명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내실 있는 현장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연계를 강화해 경북무역의 중요한 인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 꾸준히 기여해 왔다.

차순애 경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앞

으로 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무역전문가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길을 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료생들이 해외시장 개척 전문가로서 활동하길 기대한다"라고 응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울진군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성장 지원

총 3억 원 규모의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모집 시행 이세용 한울본부장, "한울본부는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를 통해 울진군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계속해서 힘쓰겠다" 밝혀

한국수령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3년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는 울진군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내 23개 기업에 7억 원을 지원하여 누적 매출 약 64억 원 달성에 기여했다.

올해 한울본부는 자립 기반 구축에 1억 5천6백만 원, TV광고에 3천만 원, 온라인 판로 구축 지원에 5천8백만 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 업종 간

공동사업모델 개발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 모집 신청은 25일부터 8월 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울진군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경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bse.or.kr), 한울본부 홈페이지(www.khnp.co.kr/hanul/main.office),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Index.uljin)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를 통해 울진군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3 Social Farm Project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 ① 자립 기반 구축 사업 지원
 - 12개 기업 내외 선정
 - : 시설개선 장비 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 지원
- ② 우수기업 TV광고 지원
 - 1개 기업 선정
 - : 기업 홍보 TV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 ③ 온라인 판로지원
 - 3개 기업 내외 선정
 - : 우체국 브랜드관 입점/프로모션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
- ④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공동사업모델 3개 내외 선정
 - : 최소 2개사 이상의 유관업종 기업 공동사업모델 개발·운영 지원

모집 개요

지원대상: 울진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단일신청 가능)
※ ①, ②번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

모집기간: 23. 7. 25(화) ~ 8. 9(수) 18:00시까지

문의처: 김현민 연구원 053-850-4891

한수원주변원자력본부 |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천군, 호우피해 트라우마 심리상담 등 시의적절한 조치 호평

호우피해 주민 마음건강 회복 돕는 심리상담 등 지원 마을안심버스 운영, 트라우마 상담으로 재난심리 회복에도 힘 쏟아



예천군은 지난 1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호우피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등 시의적절한 발빠른 조치를 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일상생활 장애와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적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어, 영남권 권역트라우마센터와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음회복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심리지원이 매우 필요한 이

재민 임시주거시설, 상담 희망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을 지속해서 추적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마을안심버스를 예천군 임시주거시설(진호국제야구장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하고 스트레스 측정과 심리 검사 및 상담을 진행 중이다.

마을안심버스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재민은 물론, 재난 상황을 겪은 주민과 대응인력 등 누구든지 원하면 방문 이용이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장학금 및 보육비 전달

이재혁 사장,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하고 싶다" 밝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내 취약계층 장학금 및 보육비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정동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장학금 및 보육비 지원사업은 2015년에 시작해 8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을 낮춰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영유아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3억원 정도 지원했다.

해당 기부금액은 지역별 순차적으로

매년 지원되며, 올해는 안동, 경산, 의성, 고령, 봉화 등 9개 지역에 가구당 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이번 장학금 및 보육비 지원사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개발공사의 성금이 경북도내 곳곳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흠쇼핑, 완판 행진 이어가...

김주수 의성군수, "흠쇼핑으로 전국에 의성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돼,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성군이 TV흠쇼핑을 통한 전국 최대 주산지인 자두와 복숭아, 마늘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흠쇼핑은 2023년 상반기 기준 10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마늘, 자두가 방송 중 완판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의성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의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업을 통해 지난 달 29일 공영흠쇼핑 채널에서 의성 햇한지마늘 3kg 상품의 4천세트 완판을 시작으로 이번달 4일에는 흠쇼핑 채널

에서 의성 대석자두 750g×5팩 상품이 5,561세트가 판매가 되어 완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흠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의성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달 24일부터 26일까지는 의성 백도 복숭아가 출격하여 공영흠쇼핑과 N시컴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근수/기자

구세군, 수해 이재민 1,600여 명에 사랑의 밥차 지원

박현국 봉화군수, "실의에 빠진 봉화군민을 위해 따뜻한 손길 내밀어 준 한국교회봉사단 구세군에 감사드린다"고 밝혀



한국교회봉사단인 구세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봉화 수해피해 현장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다.

구세군 사관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고 임시대피소에서 머무는 이재민을 위해 3일간 1,60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 생수 100묶음과 함께 제공했다.

장규영 구세군 사관은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니 피해상황이 더욱 심각해

마음이 아팠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식사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실의에 빠진 봉화군민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한국교회봉사단 구세군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 구호와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장마후마(산약)병해증가예상, 방제서둘러야

강우 시 곰팡이에 의한 점무늬병, 탄저병 전파 속도 빨라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긴 장마로 인해 마(산약) 재배지에서 탄저병, 점무늬병 등 병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빠른 진단과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마 주산지인 안동 북후면을 포함한 14개소에서 6월 부터 병해충을 예찰한 결과, 6월 중순까지는 탄저병, 점무늬병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하순부터 현재까지 이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에 발생하는 병의 대부분은 곰팡이에 의한 병으로 주로 장마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올해처럼 장마가 길고 강수량이 많은 경우 비, 바람에 의해 감염이 확산되는 탄저병, 점무늬병, 시들음병 등의 발생이 촉진된다.

안동 북후면 기준으로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강수량은 449mm로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94mm, 평년 대

비 274.2mm나 증가했다. 점무늬병은 잎에 수침상의 갈색 소형 반점을 나타내다 진전되면 점점 대형 반점으로 커져 잎 전체가 고사돼 죽거나 작은 반점들이 합쳐져 큰 괴저가 생기고, 말라비틀어지는 잎마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탄저병은 주로 잎, 줄기에 발생하며 부정형의 반점으로 시작해 점차 주변부로 확대돼 진한 갈색의 등글고 움푹한 병반을 형성한다. 병의 전파와 진전이 빠르고, 잎과 줄기를 고사시켜 식물 전체에 감염되며 심할 경우 마의 지상부가 일찍 고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가 그치면 테부코나졸수화제, 아족시스트로빈수화제, 디페노코나졸수화제 등 적용약제를 확인 뒤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감염된 마 줄기와 잎 등 잔존물들을 깨끗이 없애므로서 발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

하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마는 8월 이후 생육최성기인 만큼 지금부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지상부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



며, “앞으로도 마 재배농가의 선제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기상 분석을 연계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구조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연찬회를 통해 임직원 실무능력 향상, 사고 예방과 고품질의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 지속 노력됨” 밝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9일(수), 공사 대강당에서 공공주택 건립사업 구조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주)두루엔지니어링 백태순 대표(건축구조기술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설계 및 시공 감독관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및 건설공사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강사와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

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설계-시공-사업관리 분야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사고 예방과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임직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황금은어축제’ 취소로 특산물 홍보 이벤트 큰 눈길 끌어

황금은어 50% 이상 저렴하게 현장 판매

많은 지역민관광객들 혜택 고려 1인당 구매물량 5kg 제한 판매해

영덕군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큼에 따라 2023 영덕 황금은어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축제용으로 양식 중인 황금은어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영덕황금은어 양식장에서 현장 판매한다.

이에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이를 위한 생물 황금은어를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1kg당 1만 원에 판매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물량을 5kg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덕황금은어 양식장은 지품면 경동로 7858에 있으며, 판매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다.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730-6576)으로 하면 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축제가 취소된 아쉬움을 이번 현장 판매로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며, “오심천 맑은 물을 머금은 영덕 황금은어를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봉화군, 집중호우피해 현장 찾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건의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21일 봉성면 우곡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재해예방 시설 보강을 건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과할 정도의 대응을 당부한 만큼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찾은 봉성면 우곡리 오그래미 마을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토사가 유실되어 가옥전파 7채, 마을도 유실, 기반시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민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부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주민들이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7월 13일에서



15일 사이 내린 폭우로 사망 4명, 주민대피 56세대 87명, 주택침수 90동, 농경지 및 농업기반시설 427ha와 도

로 하천 등 공공시설 121개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남해군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실적, 목표달성도, 특수시책 추진 성과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분야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각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남해군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위하여 드론·항공 및 지상예찰을 실시하였고, 정확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제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남해군은 감염목 및 기타고사목 등 약 1,378본을 벌채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파쇄 또는 훈증작업을 실행했다. 또한 감염목 주변 소나무림 369ha에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복합방제를 통하여 방제효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이 약 45%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남해군 관계자는 “소중한 소나무림의 보존을 위하여 무허가벌채, 훈증무더기 훼손,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체계적인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경주축산농협 TMR사료공장 완공... 농가 사료비 절감 기대

21일 월 2500톤 규모 생산 능력 갖춘 ‘경주축협 TMR사료공장’ 준공식 개최

차별화된 사료 공급을 통한 소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

주낙영 시장, “조식료 제조/사료비 등 다각적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최선 약속”



경주시가 차별화된 신개념 고품질 사료(EMF) 공급처를 마련했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천북 오야리에서 월 2500톤 규모 사료 생산 능력을 갖춘 ‘경주축협 완전배합사료(TMR) 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식에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장 및 도·시의원, 농협중앙회 축

산지원본부장, 농협사료 대표이사를 비롯한 지역 조합장, 조합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축협 TMR사료공장은 2만6320㎡ 부지에 170억의 사업비를 들여 6982㎡ 공장규모 등 총 3개 동으로 건립됐다.

이번 TMR사료공장 건립 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센터도 추가 건립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사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농가들의 오랜 숙원으로 국내외 어려운 축산환경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경주축산농협은 월 5500톤 규모로 시설을 증설해 양질의 사료를 대량으로 생산·보급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예정이다.

하상욱 경주축산농협장은 “우리 조합원과 지역 축산인들의 오랜 염원인 TMR 사료공장을 준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준비한 만큼 차별화된 사료를 공급해 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소 값 하락과 지속되는 사료 값 인상으로 고생하는 축산농가에게 이번 TMR사료공장 준공으로 축산농가 경영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에서도 조사료 제조비 및 사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타용/기자

청송군·파천초등학교, 지오파크 페스티벌 개최



움을 줄 수 있도록 3학년~6학년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번 지오파크 페스티벌에서는 학년별 발표를 통해 우리 고장 지질여행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으며, 학생들이 무지개 습곡 키팅 만들기, 화산 만들기, 색깔 모래 퇴적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하여 학생 주도의 배움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들은 청송 지질공원해설사가 운영하는 공룡화석 비누 만들기, 북극곰과 공룡 친구 오르골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와 지오파크 골든벨 참여를 통해 청송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특성과 기후변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세계지질공원 협력학교는 지역 미래세대로 하여금 청송의 지질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개발된 과목이다.”

이를 위해 청송군과 파천초등학교는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지질공원을 학습하고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도

윤근수/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애절한 심정 금할 길 없다”

20일 오후 故 채수근 상병 빈소 찾아 조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후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마련된 故 채수근 상병의 빈소를 찾아 헌화했다.

조문에는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故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되신 분들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조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과 곁에서 함께했던 해병대 장병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도지사로서 애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살피겠습니다.”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 모두 명복을 빌어야 한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도청 간부들도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바라며, 이런 아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故 채 상병의 영결식은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열린다. 채 상병의 유해는 화장을 거쳐 이날 오후 5시경 전북 임실 호국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영양군은 21일 대전보건진료소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북대병원, 안동의료원, 오지마을건강사랑방 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합동진료)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전문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춘 행복병원팀이 찾아가는 이동 진료로 2013년부터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안동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 7~10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 정형외과(경북대병원), 피부과(안동의료원), 한의과(오지마을건강사랑방)로 다양한 진료과

가 있어 필요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등)이며, 진료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수술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진료로 인한 불편감이 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영주시 호우피해 현장 찾아…박남서 시장과 현안 논의

박 시장 “삶의 터전 잃은 주민에 정부 차원 지원 시급” 신속 지원 건의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가용재원 총동원해 지원” 약속해 박정환 육군총모총장도 현장 찾아 피해복구 장병 격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주택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박남서 영주시장을 만나 피해복구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남서 시장은 추경호 총리에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영주시가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영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석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가용재원을 총동

원해 신속히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 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산사태 예후를 파악해 마을주민을 빠르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영주시 단산면장, 단곡2리 마을 이장을 격려했다.

또, 이재민 20여 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단곡2리 마을회관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 하면서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복구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향후 자연재해 방지 및 선제 대응

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댐·제방 등 재해예방 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주시 단곡리 주택침수 현장에는 추 부총리 방문에 앞서 오후 12시 박정환 육군총모총장도 찾았다.

박 참모총장은 송호준 영주 부시장과 함께 호우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복구 중인 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부모님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 주민들을 만나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국민의 군대로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역의 아픔에

현장을 찾아주시 추경호 부총리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에 감사드립니다”며 “정부에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만큼, 최대한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부산시, 올해 첫 야간 시민 나눔장터 개장

지난 22일, 송상현광장에서 야간 나눔장터 개장, 누구나 참여 가능 재사용품 판매 및 폐건전지·종이팩 교환행사 추진 가족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분리배출 교육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

부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송상현광장 내 잔디광장 일원에서 「7월 시민 나눔 야간장터」를 개장했다.

이번 야간 나눔장터 개장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며, 가족들의 활동 지원과 휴식 장소 제공을 위해 오는 8월 셋째 주 토요일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단, 우선시 야간 나눔장터를 개장하지 않는다.)

시민 나눔장터는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최초로 개장해,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과 나눔에 동참하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돼 자원 재순환의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반 시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가 의류, 가방, 도서, 음

약 관련 물품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 용품을 판매하며, 생활 속 분리배출 습관을 기르기 위한 폐건전지·종이팩 교환, 우산 수리 행사도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주최(자원순환과)하고 (사)에코언니아가 주관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직접 판매에 참여하는 어린이 장터를 운영해 환경보호 실천과 경제활동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날에는 탄소중립 퀴즈대회, 작은 음악회 등 자원순환과 나눔을 실천하며 아이들에게 환경의 가치를 알릴 다채로운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 나눔장터가 시민들의 일상에 더욱 적극 다가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미래환경 정책일환인 나눔장터에 더 많은 구·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리마켓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사용의 즐거움과 나눔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4회에 걸쳐 개최한 ‘2023 시민참여 나눔장터’에는 개인/단체 505팀, 1만6천200명 이 참여했고, 총 2천870점의 물품이 판매돼 재사용됐다. 참여자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금한 판매수익은 11월 굿바이 나눔장터 후 전액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100가구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송중진/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수해복구 모두 힘낼 때, 자원봉사자께 깊은 감사”

군부대·해병대·경찰·소방·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 구슬땀 실종자 수색과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예천군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예측 불가능한 장대비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밀려들고 있다.

이번 폭우로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 침수·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뿐 아니라 주택파손,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주민들 생활 터전이 망가졌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군에서는 수색과 복구를 위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총 13,228명(소방 1,290 경찰 1,257 군부대 5,081 행정 3,280 민간 2,320)의 인력을 투입해 관내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재해마다 현장에서 버팀목이 돼주는 장병들은 일반인들이 염두를 내기 힘든 작

업에도 큰 역할을 하며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된 해병대 채상병의 사고는 예천군민 모두를 울렸고, 20일 김학동 예천군수는 포함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천군 공무원노동조합도 위로금을 전달했다.

한편, 자원봉사 단체와 개인 봉사자들은 수마가 덮쳐 흘러내린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이나 긴급 복구가 필요한 곳에서 무더위 속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심심일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지원 물결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장비를 이용한 현장 정리가 시급하며, 다음 주부터는 자원봉사자가 대거 투입돼 수작업으로 피해 가정의 가재도구에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동 군수는 “폭우 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수해복구로 구슬땀 흘리는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가 끝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새로운 양상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지역 안전진단을 통해 항구적인 복구와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군관계자들에게 주문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피해지역을 돕고자 물품과 수재의연금 등을 기부하겠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원/기자

전남도, 이차전자·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발전 모색

광양만권 전략산업 육성 토론회서 생태계 조성 방안 등 논의

전남도는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 토론회'를 지난 20일 광양시청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전남도, 광양시, 한국배터리사업협회,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포스코퓨처엠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 육성 및 고도화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전남도, 광양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차 지속 확대와 함께 전동화, 무선화 등 세계 산업

동향 변화로 이차전지 성장률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양만권 선도기업과 연계해 소재 부품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등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권역별 특장점을 활용해 소재 생산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많은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재활용 분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중부권에는 이차전지 완제품, 응용제품 생산 및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풍부한 기술혁신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MWh급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술개발 사업', '전기차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친환경선박, 이(e)-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차전지 전방 수요 시장을 보유한 서남권은 대규모 실증 및 사업화 지구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8.2GW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폐의약품,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나주시, 폐의약품 수거율 높인다

20일 나주우체국·우체국공익재단·약사회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생활계 유허폐기물인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안전하게 회수하고 지자체가 처리하는 수거 체계가 나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시행된다.

나주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나주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 나주시약사회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기홍 나주우체국장,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이사장, 이영태 나주시약사회장을 비롯해 4곳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8월 1일부터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도입한다. 협약에 따른 폐의약품 수거 방법은 집배원 직접 방문과 우체통 회수 등 크게 두 가지다.

가까운 우체통은 우체국 누리집 '우체통 위치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약국별 수거함 보급을 위한 홍보, 복용 후 잔여 약품 회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정에서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건강과 나주의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단히 소중한 협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통을 활용한 실용성 있는 폐의약품 수거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신 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나주우체국장은 "우체통, 약국 수거함 등을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 회수·배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기관과 협력해 공적 서비스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생물계 유허폐기물인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안전하게 회수하고 지자체가 처리하는 수거 체계가 나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시행된다.

나주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나주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 나주시약사회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기홍 나주우체국장,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이사장, 이영태 나주시약사회장을 비롯해 4곳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8월 1일부터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도입한다. 협약에 따른 폐의약품 수거 방법은 집배원 직접 방문과 우체통 회수 등 크게 두 가지다.

가까운 우체통은 우체국 누리집 '우체통 위치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약국별 수거함 보급을 위한 홍보, 복용 후 잔여 약품 회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정에서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건강과 나주의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단히 소중한 협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통을 활용한 실용성 있는 폐의약품 수거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신 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나주우체국장은 "우체통, 약국 수거함 등을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 회수·배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기관과 협력해 공적 서비스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순천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5주년 기념행사 갖는다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

순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5주년을 맞아 오늘 7월 25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식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식 때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품을 국제습지센터 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며,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증진하여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

국내에는 설악산, 제주도, 순천을 비롯한 9개소만 지정되어 있지만, 꾸준

히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과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레저스포츠 엑스포' 두 행사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WORLD DRONE FESTA 2023 NAMWON, KOREA)』라는 공식 명칭

으로 통합하고, 더욱 글로벌한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순택 부시장 주재로 26개 실과소장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세부사업 내용과 이에 따른 홍보계획, 운영계획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전문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종합안전관리·물가안전대책, 교통통제 종합관리, 셔틀버스 종합관리, 농산물판매부스 등 분야별 업무를 각 부서에 배정하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이남출/기자

이순택 부시장은 "이번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우리 남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 남원이 외국인들에게 감명깊게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는 이번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 문제점 공유 등을 통해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며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2023 글로벌 드론산업박람회 ▶드론축구대회 ▶2023 대한민국 드론공연 페스티벌 ▶2023 남원 세계음식문화축제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항공우주 체험, 드론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주)수도씨엔지 임필성 대표, 함평군에 구명조끼 100벌 기탁

수리시설 감시원 220여명에 지급 계획

전남 함평군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훈훈한 나눔이 이어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주)수도씨엔지(합평읍 소재)를 운영하고 있는 임필성 대표가 구명조끼 100벌을 지난 19일 함평군에 기탁했다.

임필성 대표는 지난 4월 대동·신광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직원과 물자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

정받아 함평군 7월 정례초회에서 함평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상의 군수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엄다면 사망사고의 미안함과 애통함을 표현하며, 구명조끼만 있었더라도 귀중한 인명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임 대표는 구명조끼 기탁을 결심했다.

임 대표는 "작은 힘이나마 함평군을

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의 군수는 "구명조끼를 기탁해 주신 임필성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수해에 취약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22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완도해경, “깨끗海 바다sea” 해양 정화활동 나서다

민·관 정화활동으로 집중호우 해상부유물에 따른 해양오염, 선박사고 예방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최근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장흥 수문 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안전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민·관 합동 정화활동 행사에는 완

도해경, 장흥군, 명예감시원 등 44여 명이 참석하여 수문 해수욕장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약 1톤을 수거했다.

완도해경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해상 부유물이 다량 발생에 따라, 해안

가 주변으로 쓰레기들이 유입되어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를 실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연안정화 활동이 관내 해양환경 보존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존에 앞장서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양영윤/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 3개소 선정, 역대 최대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65억 원, 지방비 1,556억 원, 민자 1,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지구별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양구 스포츠행정 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 원이 투입되며,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5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조성 등으로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 가지의 인허가 의제협의 등 특례가 부여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크게 기대하며, 지난 1월부터 시군사업설명회, 대책회의, 컨설팅, 모의 발표 등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장을 직접 만나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 투자선도지구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16~'23년), 수월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7년), 속초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23~'30년) 등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에 대규모 투자선도지구 선정되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간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노력해주시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도민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공모

1959년 제1회 문화상을 시작으로 올해 65회째 시상

강원도는 강원문화 창달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도민을 발굴하고자 '제65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를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부문은 학술, 공연예술, 전시예술, 전통예술, 문학, 체육, 향토 문화연구 등 7개 부문이며, 자세한 자격기준은 7월 2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제65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9년 제1회 문화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65회를 맞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은 지난해까지 강원 문화예술발전 위해 힘써 온 308명을 발굴해 시상해왔다.

후보자 접수는 각 분야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해 8월 29일까지 강원도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공

적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033-249-3318)로 문의.

수상자는 부문별 학식과 경향이 풍부한 심사위원으로 위촉,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은 매년 당일행사로 개최되던 '문화의 날' 행사를 올해는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맞이하여 4일 간(10.12.~15.) "강원예술인 한마당"으로 확대 개최하는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정해숙 도 문화예술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되는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인 만큼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제8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부제: 2023 태백 선선 페스티벌) 수계도시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공연팀들이 한자리 모여!

제8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부제: 2023 태백 선선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인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계에 속하는 도시들과 태백시의 우호 교류 도시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공연팀들이 발원지 태백에 모여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 간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색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한강 유역 74개 도시, 낙동강 유역 51개 도시, 우호 교류 도시 3곳을 대상으로 공연팀들을 모집하고, 총 104팀이 접수하여 축제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7월 28일(금) 개막식에서 펼쳐지는 경기 김포시 예술 불꽃 화랑팀의 개막 퍼포먼스 '연못 위 불 도깨비'의 불꽃쇼 공연을 시작으로, 7월 30일(일) 오후 2시부터 태백역에서 진행되는 태백 워터윙 퍼레이드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복궁 취타대가 행렬의 선두에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동작구 한국컨템포러리 발레단의 발레 공연과 경기 고양시 화정무정팀의 굿거리춤 전통 공연, 경기 파주시 대한무용협회 파주시부와 경기 남양주

시의 이지는 댄스프로젝트에서 각각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7월 31일(월)에는 경기 김포시 윤아트컴퍼니의 팼페라 공연과 대구 남구 화애락의 퓨전국악 공연, 8월 1일(화)에는 경기 성남시 원 뮤직의 뮤지컬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8월 2일(수)에는 서울 강남구 구각노리의 신나는 퓨전국악과 경기 의정부시의 툰어라운드가 펼치는 재즈밴드 공연으로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으며, 8월 3일(목)은 경남 김해시 김해오광대보존회가 펼치는 오광대 탈춤 공연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예술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8월 4일(금)은 우호교류도시의 날로 제주 서귀포시 '모하'팀의 버스킹 공연과 경기 안산시의 베니엔프렌즈 팀이 팼페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8월 5일(토) 주말에는 경기 의정부시의 그름 밴드와 경기 동두천시의 스프링스 밴드가 락밴드 공연을 진행하여 색다른 밴드공연을 즐길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인 8월 6일(일)에는 서울 중구 갤러리클루의 비보잉 공연이 펼쳐져 수계도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의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필 예정이며, '싱어게인1' 71호 가수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 성남시 우지원의 어

쿠스틱 공연이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제8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부제: 2023 태백 선선 페스티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여름을 기다려온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춘천시 유관기관 머리 맞댔다

학교폭력 근절 위해 기관별 협력방안 구체적 논의

춘천시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쳤다. 시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 내 식당에서 '학교폭력 ZERO, 춘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춘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6월 열린 '학교폭력 ZERO 춘천' 선포식에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그동안 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또한 두 차례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과제 등을 반영해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폭력 대응 민·관 합동 생태계를 구축하여, 유관기관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단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8월 개학기에 맞춰 민·관 합동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진로 체험 프

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강남·명동·강북권 역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청소년수련관은 8월까지 세단장한다.

청소년수련관이 세단장하면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래 활동을 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개인·방문상담 등 각종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일탈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하반기 추진한다.

춘천시교육지원청 역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평화로운 학급 세우기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화해 조정 및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춘천경찰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보호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 범죄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수칙 교육을 병행,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생애주기별 돌봄에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ZERO 춘천' 선포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원주시, 민선8기 공약 이행 보고회 개최

2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원주시는 2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 이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원강수 원주시장 주재로 국·소·원장, 공약추진 부서장, 주민공약 평가단 등 9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6개 분야, 84개 과제, 132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민선 8기 공약 완료율은 22.7%로 30개 공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02개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매달 10만원 지원(꿈이룸 지원사업) ▲기업도시-중심가-혁신도시 구간 버스 운영 확대 ▲동부순환도로 건설 재계

등 총 16건의 공약 이행을 완료했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한편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8기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주민공약 평가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의 힘’으로 거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김 지사, 대통령·부총리·장관 등에 잇따라 당위성 주장하며 지정 이끌어 내



충남도가 국가적 산업·경제안보 강화 및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유재홍 도 산업경제실장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이 마침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실장은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첨단산업의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충남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단지 10개를 연계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첨단전략기술 경쟁력 확보 및

양산체계 공격적 투자로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 및 ‘경제 안보’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육성 목표**

현재 디스플레이산업 시장은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 10세대 액정표시장치(LCD) 투자로 세계 액정표시장치 시장 1위로 도약한 상태다.

중국은 액정표시장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까지 추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중 양자간 경쟁구도이나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디스플레이 공급망 독점 시 무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세계적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

를 점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통해 충남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3258억 원을 투입한다.

지정혜택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 혁신생태계 지원 △에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신속처리 △융적률 상향 지원 등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1412만㎡(약 428만평)로 축구장 1988개가 넘는 규모이며, 도는 신규 7개 사업(1253억원)과 기존·연계 10개 사업(2005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효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반 제공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안보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3만 명이 넘는 일자리와 32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은 세계적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요충지로서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전후방 산업 중소기업 757개가 천안·아산 등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267억 달러(51.3%)를 생산했다.

도내에는 이미 발광 다이오드(OLED) 및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기업 및 전후방산업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 인접한 11개 대학에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를 두고 산학연 협력을 진행하면서 전문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테스트베드와 연계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자동차 및 반도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신산업 발굴에도 노력한다.

◆ **특화단지 지정 총력 대응 ‘성과’로**

도는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전략과 독심이 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세계 1위이자 도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이 2021년 중국에 역전된 것에 위기를 느끼고 당선인 신분 때부터 대통령 및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등을 만나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 8.6세대 정보통신기술(IT)용 발광다이오드(OLE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최대규모인 4조 1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도는 특화단지 지정 공모 발표 이후 연초부터 세계 1위 앵커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및 전문가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총력 대응,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유 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를 발판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신산업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협력-인력교류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 환영”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

정부는 20일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등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아산시를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첨단전략사업 전진기지 조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협력과 인력교류 등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2042년까지 예정된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길러 규제 완화, 세액공제,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예타 신속 처리 및 면제, R&D 우선 선정 등의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약 40조 원의 투자유치, 165조 원의 기업 사업화 매출 발생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3만2108명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줘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시장은 “디스플레이 분야는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경쟁국 중국의 공격적 투자가 계속되면서 우리 기술력이 맹추격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디스플레이패널 세계 1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있고, 아산시가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지라는 점을 공고히 해주신 덕분에” 이라며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의 4조1000억 원 신규 투자유치 지원 등 아산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전후방으로 지원해주는 충남도와 김태홍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발전과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원호/기자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아 인구 65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 정주 여건 구축과 아산시 100년 미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소부장 R&D 사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각종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 기술 선도 및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자원의 집적화,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래는 박경귀 시장의 환영 성명 전문이다.

정부의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아산시 지정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현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경쟁국 중국의 공격적 투자가 이어지면서 기술력이 맹추격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첨단기술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때에 정부가 아산시와 천안시를 국가적 산업·경제 안보 강화 및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한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아산시는 디스플레이패널 세계 1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있고, 아산시와 인근 천안시를 합쳐 700개가 넘는 관련 중소기업이 있는 준비된 첨단전략산업 집적지이다. 이 지역을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국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 확신한다.

아산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 기술 선도 및 지속 가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혁신자원 집적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전략기술 개발 추진과 조기 사업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협력-인력교류 등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결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홍 도지사께서 탕정면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방문으로 아산시가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지라는 점을 공고히 해주신 덕분에 맺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의 4조1000억 원 신규 투자유치 지원 등 아산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전후방으로 지원해주는 충남도와 김태홍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발전과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국비 50억원 확보, 전국 7개소 중 충북 2개소(보은, 괴산) 선정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보은군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와 괴산군 ‘천년한지센터 조성사업’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은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시군(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면·현장심사와 발표평가 등 3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충북 보은·괴산군을 포함해 총 7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육천군과 괴산군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2개 군이 선정되어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괴산군은 지난 지역활력타운사업에 충북 1호로 선정되어 국비 81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년 연속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보은군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전입인구 증대,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인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보은군에서는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아본 후 정착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 20호)을 조성하고, 인근에 어울림센터, 어울터, 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 기반시설 정비 추진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빈집을 활용한 정

주주택 공급, 귀농·귀촌인에 대한 경작농지 임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괴산군 ‘천년한지센터’ 조성사업은 닥나무 재배, 한지 생산으로 특화되어 있는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한지공작소를 조성하여 한지를 활용한 한지체험박물관, 신평한지마을 등과 연계하고, 한지문화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지 소재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문화산업과 일자리 창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수제한지 생산,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등 차별성을 살린 특화 전략으로 한지문화산업을 확장하고, 지역체험관광 활성화, 농외소득 창출, 지역특화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연구원, 토지구획연구원, 군과 협조



하여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등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 군과 함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성거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기업 부지수요 적극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주기업 28개, 일자리창출 1157명



천안시는 성거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인가를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성거산업단지(주)는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1공구 준공 승인을 천안시에 신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합동 준공 검사를 실시하

고, 준공검사 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결과와 실시계획 승인 내용 시행 여부를 확인해 21일 부분 준공 인가를 공고했다.

이번에 준공된 부분은 성거일반산업단지 면적(305,746.1㎡) 중 노외주차장 부지(2,485.3㎡)를 제외한 전체 면적(303,260.8㎡)이다.

시에 따르면 산단은 올 12월 말까지 추후 잔여 사업 기간을 채워 준공할 수 있었으나, 준공 전 미리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일부를 미리 준공하게 됐다.

현재 성거일반산업단지에는 28개 기업이 입주해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100% 완료됐으며, 이 중 13개 기업은

공장을 착공했고 3개 기업은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득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1공구 부분 준공으로 천안 북부 지역 내 본격적인 기업활동과 더불어 1,157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5월 산업단지계획이 접수돼 총 사업기간 50개월, 사업비 781억 원이 소요됐으며, 산업용지 분양률 100% 성공리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점검

김태흠 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4개 시군 찾아 이재민 격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청양·부여·논산 등 4개 시군을 방문,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주 옥룡동 주택 침수 현장, 청양 청남면 농경지 응급 복구 현장, 부여 세도면 농경지 응급 복구 현장, 논산천 응급 복구 현장, 논산 양촌면 추모원 현장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과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각 피해 현장별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복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도민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하고, 각 시군과 협의해 호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출하를 앞두고 피해를 본 시설작물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정부

에 건의하고, 배수갑문 용량 확대 및 시설 개선, 지천 및 강 분류 합류 지점에 대한 정비 등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597건, 사유시설 229건, 농경지 1만 282ha, 가축농가 157곳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597건 중 318건(53%)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4세대 3188명 중 1887세대 2826명이 귀가를 하고, 미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경기도, 하천 분야 광역 연락망 구축. 범람·유실 등 재난 선제 대응키로

21일, 청주 공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경기도 하천분야 대책 마련 시군 관계자 회의 개최

경기도가 공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재난상황실 비상대응체계와 별도로 하천 분야 도-시군 광역연락망을 구축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하천부서 과장 등과 함께 ‘충북 청주 공평2지하차도 자연재해 관련 하천분야 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

도와 시군은 재해 상황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하천부서 간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천 붕괴·범람 등의 재난이 발생해도 재난상황실 비상 대응 체계만 유지됐지만 이제는 하천 분야를 담당하는 도와 시군 전 직원이 들어간 비상 연락망(단독방)을 구축해 하천 관련 재난 정보를 실시간 공유·전파한다.

자연재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 상황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전문가 강의를 실시한다.

이밖에 재해 상황 시 하천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책로,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이용에 대한 하천 출입로 차단 등 강력한 통제도 시군에 당부했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가 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상 대응 체계 시스템을 촘촘하게 교차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이렇게" 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 발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완료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간, 지난 4년 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해체공사장 매뉴얼'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여건과 주요, 그간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담겼다.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2020년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으며, '도로변 가설물타리 설치기준'과 같이 시민 안전과 불만 해소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자립형·벽이음 가설물타리 설치와 해체순서, 이동식 안전펜스·낙하물방지망 등 해체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예시 등 해체공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준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서울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소규모 해체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한 개념 설명도 포함, 작업 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8일 시내 모든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 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검색창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매뉴얼을 게시했다.

시는 지난 7월 12일 서울시 건축안전전문관(건축구조기술사)이 시·구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매뉴얼에 기반한 해체공사장 안전 관련 실무교육도 진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역량 및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최신 여건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체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교육·점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파주시, '극한호우' 대비 침수 위험 도로 현장 확인

"시민 안전 최우선, 호우 대비 철저 당부"



파주시는 지난 18일 파주시장 주재 호우 대처사항 긴급 점검회의 이후 후속 조치로 관할 읍면장과 도로관리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극한호우 대비 침수 위험 도로 현장을 확인했다.

위험 도로로는 물고임 발생 민원이 있어 극한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로, 문산읍 2곳, 광탄면 1곳, 탄현면

1곳 총 4곳을 점검했다.

파주시는 현장 확인 중 조치가 가능한 배수로 준설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도로법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하지 아니한 국지도, 지방도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보수 및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탄현면 침수 위험 도로를 직접 확인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배수 시설을 점검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우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극한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어메니티장흥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2023-2024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9(토)~8.6(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은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에 빠져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독도소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와 업무협약 체결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진태)와 독도소주(대표 임진욱)는 7월 21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독도소주에서 출시되는 제품을 활용한 산림엑스포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독도소주에서는 출시하는 제품(약 60만병)에 라벨지를 활용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독도소주 임진욱 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잰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개최된다.

이등원/기자



강남구,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강남뷰티' 114억원 계약상담 성과

11일~13일 북미 최대 B2B 뷰티쇼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 6개사 참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에 참가해 880만불(한화 약 114억원)의 계약 상담 성과를 올렸다.

올해로 20회째인 북미 코스모프로프는 북미지역 최대의 B2B 뷰티 박람회이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홍콩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뷰티 박람회로 꼽힌다. 최근 중국의 경기침체와 자국 제품 선호 현상으로 대(對)중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북미, 동남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추세라 업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관내 뷰티 제품 유망기업인 ▲(주)파켓 ▲(주)데이지 ▲(주)모담글로벌네이처 ▲라온커머스(주) ▲(주)케어마일 ▲(주)코리얼 등 6개사가 화장품, 헤어 제품 등을 선보이며 '강남뷰티'의 우수

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 결과 150여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880만불(한화 114억원)의 계약 상담 성과를 올렸다.

구는 참가기업 6개사에 참가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현장 바이어 상담 주선 및 트레이드 코리아(온라인 전시관) 입점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 구는 K-뷰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두바이 뷰티월드'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28일까지 두바이 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코스모프로프 전시회에서 거둔 성과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통상촉진단 파견, 투자 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함양 하안햇살(주) 떡볶이떡 태국으로 수출

20일 떡볶이떡 9.4톤 태국으로 첫 수출 선적

함양군은 20일 오전 함양읍 이은농공단지 내 농업회사법인 하안햇살(주)에서 떡볶이떡 9.4톤을 태국으로 수출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은농공단지내 생산공장에서 20ft 컨테이너에 1만1,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선적했으며, 이번 태국 수출은 지난 4월 동남아 시장개척단으로 참여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에 따른 성과로 수출 판로가 개척 됐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농업회사법인 하안햇살(주)은 간편식 떡볶이 브랜드인 굿볶이 제품을 상온에서 12개월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K푸드 열풍 등 다변화하는 해외

수출 시장 대응을 위해 수출박람회, 라이스쇼, 수출상담회 등 행사에 적극 참가하며 끊임없는 소비 트렌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향후 이슬람 국가 맞춤형 할랄 제품, 유럽 시장을 겨냥한 비건 제품과 글루텐프리 제품 등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하안햇살(주)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세계 각국에 K푸드 떡볶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세계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마장동 3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기반시설 열악한 개발 소외지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서울시가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급경사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주거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구릉지에 위치한 마장동 382일대는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려워 고밀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일체적 기반 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막다른 골목과 급경사지에 면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립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어려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구릉지 특성을 반영한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17,959㎡, 24층 내외, 약 26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①연접한 개발사업과 조화되는 통합적 계획 수립 ②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구릉지 특성을 살린 외부공간 조성 ③주변 가로 및 산책로와 연결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이다.

첫째, 이 지역 일대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마장역, 청계천, 한양대 캠퍼스 등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대상지와 사근동 293일대 재개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 진입도로 및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작년 말 대상지 동측 사근동 293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측 살곶이2길을 사근동11나길과 연결해 확폭함으로써(현황 3~4m → 9~11m) 마장역세권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구역경계 조정, 대토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 조율 과정도 진행해오고 있다.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 토지, 6.8%가 종교시설로,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수적이다.

한편 가파른 경사지인 대상지는 지형의 고저차가 35m에 달하며, 한양대 임야를 등진 남고북저형의 대지로 일조와 건축 배치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에 두 번째로, 높이규제 완화(2중7층 → 24층 내외) 및 지형의 단차를 적극 활용한 계획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현황 2중7층을 2중일반주거지역 24층 내외로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살곶이2길변에서 한양대 임야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효율적 건축배치를 도모한다.

세 번째로,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해 기

존 보행 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 동선,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입상이 양호하고 생태가 잘 보존돼 주민의 산책로로 애용되는 한양대 제2캠퍼스 내 녹지보존구역(대상지 남측)과 보행동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마장동 382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개발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약초연자리는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 **봉화군** **한양초**

경북교육청, 교권 보호 긴급 대책 발표!

임종식 교육감,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돼도록 지원,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모든 지원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금), 최근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에 따라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구성해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교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 요청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 원,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원들이 상담 및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보다 완벽한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 이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학년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1학기 발표회 실시

음악 속으로 힐링 여행, ‘비긴어게인 오천’

오천초등학교(교장 이승호)는 지난 21일, 강당에서 2023학년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1학기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그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음악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예술문화를 즐기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승호는 1학기 동안 성실하게 교육 활동에 임한 학생 2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그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음악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예술문화를 즐기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발표회는 1,2학년 우쿨렐레, 3,4학년 우쿨렐레, 3,4학년 리코더, 5학년 오카리나, 전학년 합창, 3~6학년 풍물놀이 무대를 순서로 진행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악기 연주와 합창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전교생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나누는 장이 되었다.

발표회에 앞서 오천초등학교 교장 이

윤타용/기자



경북교육청, 교육부, 유관기관, 학교와 함께 피해 복구에 전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피해지역인 문창고등학교 방문해 간담회 가져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약속

임종식 교육감, “피해 학교 신속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로 재해복구 최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1일(금)15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학교 점검을 위해 문경의 문창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학습관에서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학홍 경북도 부지사,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신현국 문경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피해 학교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상황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창고등학교는 지난 집중호우로 교사용 뒤편의 옹벽 일부가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해 주변 출입 통제 및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 시설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북교육청과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현장을 돌아 본 후, 마련된 간담

회에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피해관련 상황보고와 참석자들의 다채로운 의견 교환이 오가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번 집중호우에도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학교와 교육청,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피해 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투입,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요청,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119(긴급서비스),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자리에 모여 상주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다!”

2023 상주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주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주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중윤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식 상주시장)는 상주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경상북도교육청과 상주시의 업무협약 체결(MOU)로 구성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되며, 상주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업으로는 마을, 학교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인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학교와 청소년 자치 및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모디’의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AI교육센터’운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체험처 운영 등이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마을학교 운영은 2023년 현재, 모동면 등 8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중윤 교육장은 “어느덧 4년차에 들어선 상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상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상주미래교육지구 주요 사

김동현/기자



풍기초, 금연왕 선발 퀴즈대회로 색다른 금연 교육 진행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금연왕 선발 퀴즈대회 실시

풍기초등학교(교장 우동하)는 지난 20일(목),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예방 활동으로 금연왕 선발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색다른 금연 교육을 진행해 금연 ‘봄’조성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중간 기회가 됐다며 평가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풍기초등학교는 경북미래학교 운영으로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 변화를 지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윤근수/기자



이번 금연왕 선발 퀴즈대회는 다중원격제어 시스템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미래형 교육방식으로 전교생이 참여하여 환호성과 박수를 시작으로 그동안 배운 흡연과 금연에 대한 지식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정답을 맞출 때마다 학생들은 높은 성취감을 느꼈으며, 각종 질병의 원인인 간접흡연을 포함한 모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하려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

금연왕 6학년 박○○ 학생은 “오늘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담배는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금연왕 선발 퀴즈대회는 학생들이 흡연의 유해성을 깨달아 가족 대화를 통해 가정 내 금연 길잡이가 되는 소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 넓힌다...편의점에서 간식도 구매 가능

24일부터 CU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사 구매시 간식류 3천 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서울시가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결식우려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결식우려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아동급식카드 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이후, 2021년 가맹점을 서울 시내 전체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2022년 전국 최초로 편의점에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와 낙인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24일(월)부터 CU편의점에서 '아동

급식카드'로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식사류를 구입할 때 추가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식사류 등으로 구매가 제한되어 있어서 간식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정해진 품목만 골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편의점에서 간식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CU편의점과 협력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다. 다만,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균형을 위해 아동급식카드로 식사류(도시락, 김밥, 면류 등)를 4천 원 이상 구입할 때에만 간식류(과자류, 아이스크림 등)를 3천 원까

지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담배 등 아동·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과 고카페인 음료 등은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매장에서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이용도 간편한 '편의점 온라인 결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GS25 편의점 앱(우리동네GS)에서만 온라인 결제가 가능했는데, 오는 27일(목)부터는 CU편의점 앱(포켓CU)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편의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포켓CU] 앱에서 [아동급식]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동급식카드 번호를 등록한 뒤, 예약구매 메뉴에서 상품을 미리 결제한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점포에서 QR코드 제시 후 찾아가는 방식으로,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도 개편한다. 시중 체크카드 중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카드로 변경하고 종류도 다양화해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사업으로 결식아동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낙인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들의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영등포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영등포구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이다. 파견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등 2개국이다. 아랍에미리트 외에 한 국가는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을 고려해 참가기업 확정 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파견 일정, 파견국, 추진 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다.

파견 대상은 화장품, 생활소비재, 기계·장비, 의료기기 등 수출 가능한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다. 최종 참가기업 발표는 8월 18일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시장 조사와 바이어 상담, 통역 서비스, 단체 차량, 상담장 임차료 등 현지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사 보험, 항공료, 현지 숙박비 등 체재비는 참가 기업이 개별 부담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부터 25일 18시까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참가신청서 ▲상담품목 상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사업 참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등이다. 그 외에도 지적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서 사본, 기업 인증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우리구 소식'에서 공고문과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식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수출 유망 상품의 효율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우리동네 에너지 사용량 알려드려요!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 오픈

서울시가 에너지(전기, 가스, 열)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등 에너지 통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누리집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법정동·행정동·건물유형별 에너지(전기·가스·열)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원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며, 자료 수집·검수 및 가공으로 인해 3개월 전 데이터를 표출한다.

시는 그동안 에너지정보 플랫폼, 햇빛지도 누리집,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마곡 에너지 통합 플랫폼 등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각각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스템별로 표출 양식이 다르고, 데이터 중복 수집 문제 등이 있어 시는 개별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만든 '마곡 에너지 통합 플랫폼'에 '에너지정보 플랫폼'과 '햇빛지도 누리집' 기능을 더한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오픈했다.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은 5개의 카테고리(범주)와 23개의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맵',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가상이 전력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이다.

'에너지 맵' 메뉴는 히트맵, 핵사곤·그리드 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했으며, 자치구, 법정동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월별 추이를 히트맵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 통계'에서는 자치구별, 법정·행정동별, 건물유형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단위면적(m²)당 전기사용량, 건물유형별 에너지 사용량,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을 분석해 전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아파트 순위도 제공한다.

'나의 에너지'에서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입력하면 탄소배출량으로 계산해주는 '우리집 탄소배출량'과 플러그 뽑기, 조명 끄기 등을 실천하면 줄일 수 있는 에너지양을 안내해주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이용해 맞춤형 에너지절약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에서는 태양광 설치 조건을 입력하면 발전량을 계산해주는 '햇빛지도' 서비스와 중개사업자, 전력자원보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되어 모의로 전력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집합전력자원(가상발전소)', '에너지셰어링(개인 간 전력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햇빛지도'는 2022년 최신 항공 레이



저 측량 데이터를 적용해 건물 높이, 지형 등의 정보를 현형화하고 예측 발전량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집합전력자원(가상발전소)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개인 간 거래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시민이 발전 잉여전력을 개인 간에 매도/매수하는 소비자 상호 간 거래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그간 담당자 문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등 서울시 소관 법정 민원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홍보/자료실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 에너지 정책 자료를 제공한다.

시는 향후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에너지정보 누리집' 방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 개선 및 추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대한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통합 오픈한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에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분석 외에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남구, 명사 초청 힐링 특강...운동·마음관계·식습관 바꾸니 행복~

25일 강남힐링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 강연...초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 다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강남힐링센터(개포)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씩 생활 습관을 바꾸는 명사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강남힐링센터는 올해 초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힐링 특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운동, 마음, 관계, 음식 등 4개 분야의 습관을 바꿔 일상에서 힐링을 찾는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이 분야 전문가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첫 강연은 '관계 습관'으로 이달 25일 16시 30분에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를 초청했다. 평생을 마음 건강과 행복에 대해 연구한 이시형 박사는 이번 '신(新)인류가 밀려온다' 강연에서 4대 습관 개선을 비롯해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대책에 대한 해안을 보여줄 계획이다.

8월 17일 14시에는 '문숙의 자연식 이야기' 강연이 열린다. 영화배우이자 자연식과 자연치유 분야의 다수의 저서를 발표한 문숙은 식습관 개선과 행복에 대한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9월 9일 16시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이 운동 습관에 대해 강연한다. '나이별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를

주제로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과 나이대별 운동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10월 12일에는 정리 전문가 이지영의 강연이 열린다. 공간 정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에서도 필요 없는 것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 신청은 강연일 1주 전부터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와 강남힐링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 강남힐링센터를 추가한 후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입장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 습관을 가다듬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힐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영등포구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모집기간: 2023. 07. 12(수) ~ 2023. 07. 25(화)

신청자격: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위한 영등포구 중소기업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 게시

문의처: 지역경제과 2층 208호

2023. 10. 11(수) ~ 10. 17(토)

영등포구청 기획협력과 상공인지원팀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gun #육지안의섬 #뽕뽕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179개
yecheong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문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g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g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공중도시 예천 Clean 예천

블랙핑크 리사, 범접 불가 아우라+몽환적인 눈빛... 패션 화보 공개

블랙핑크 리사의 매혹적인 비주얼이 담긴 화보가 공개됐다.

20일, 패션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W KOREA)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셀린느(CELINE)와 블랙핑크 리사가 함께한 Vol. 8 커버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 속 리사는 복고풍의 헤어스타일과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끈다. 여기에 특유의 몽환적인 눈빛과 빼어난 비율로 셀린느만의 락시크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해 글로벌 패션 아이콘다운 면모를 뽐냈다.

이번에 공개된 화보에서 리사가 선보인 아이템은 셀린느의 겨울 23 컬렉션 'AGE OF INDIENESS'이다.

이번 컬렉션은 점차 남녀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패션계에 맞춰 다양한 젠더리스 룩을 선보이며, 에디 슬리머 특유의 스키니한 실루엣이 드러나는 인디 슬리츠 스타일을 주로 구현해낸 아이템이 돋보인다.

화려한 패턴이나 메탈릭한 소재가 돋보이는 숏 기장의 미니 드레스부터 수작업으로 제작된 꾸뛰르 자켓, 미니멀한 무드의 가죽 아이템 등 셀린느 특유의 절제되고 시크한 무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리사는 나른한 표정과 프로페셔널한 포즈로 셀린느 겨울 23 컬렉션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풀어내 독보적인 아우라를 과시했다.

길게 늘어뜨린 타이 스타일의 스카프와 미니 드레스로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해 매혹적인 스타일링을 연출하기도 하고, 페도라 아이템이나 시퀸 소재의 슬리브리스와 레더 팬츠를 매치해 무심한 듯 강렬한 무드의 룩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한편 더블유 코리아 화보 속 리사가

착용한 셀린느 겨울 23 컬렉션의 아이템은 셀린느 공식 홈페이지 및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번 화보의 더 많은 이미지는 더블유 코리아 Vol.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배우 이준호, 디테일로 빚어낸 매력 만점 본부장! 이준호의 쓰리피스에는 비밀이 있다?



3주 연속 화제성 1위에 빛나는 배우 이준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추 하나 놓치지 않는 디테일한 연기로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극본 최롬(팀 하리마오), 연출 임현욱, 제작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바이포엠스튜디오, SLL)에서 마성의 매력을 가진 신입 본부장 구원 역으로 열연 중인 이준호가 매혹적인 슈트 패션을 선보이며 눈초기를 부르고 있다.

특히 서서히 사랑에 눈을 뜨는 캐릭터의 심리 변화에 맞춰 의상의 디테일 역시 조금씩 변주하고 있는 가운데 1회부터

10회까지 이준호 표 구원 본부장의 슈트 패션을 전격 분석해왔다.

킹호텔에 들어서기 전 구원은 가식적인 웃음을 경멸하는 까칠하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구원의 성격을 나타내듯 초반부 의상은 하얀색 셔츠와 대비되는 어두운 톤의 베스트와 재킷, 그리고 넥타이를 매치하며 차가운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

액세서리를 최소화하고 엄마의 추억이 담긴 회중시계를 매치하며 내면에 잠식된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다.

무채색의 향연이었던 구원의 스타일링은 천사랑(임윤아 분)을 만난 이후 점차 컬러풀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같은 블랙의 슈트이지만 밝은 컬러의 넥타이를 매치해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서늘한 무드의 흰색, 파란색이 아닌 분홍색과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셔츠는 마음을 열어가는 구원 캐릭터의 여러 감정을 나타내 보는 재미를 더했다.

또한 이준호는 구원 캐릭터의 개성을 상징하는 액세서리로 인물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단조로운 그레이 패턴의 슈트에는 카라핀으로 포인트를 주며 세련미를 불어넣었다.

특히 극 초반부와 달리 인물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사랑에 빠진 구원 캐릭터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슈트 패션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이준호는 여러 색깔과 패턴의 슈트로 젠트함과 섹시미를 동시에 뽐내내고 있다.

여기에는 "말이나 행동 없이도 캐릭터의 분위기를 나타내려면 슈트 밖으로 몸의 맵시의 단단함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준호의 노력이 녹아 있었다.

전작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짓가락질까지 연습할 정도로 배역에 진심이었던 이준호가 이번에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체격을 키운 것.

체격부터 의상,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이준호의 섬세함이 구원 캐릭터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다.

이에 슈트마다 미세한 차이를 두며 캐릭터의 감정선을 안팎으로 드러내고 있는 디테일 킹 이준호가 앞으로 어떤 스타일링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할지 기대를 모은다.

셔츠와 넥타이, 단추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이준호의 섬세한 열연이 빛나는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는 매주 토,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영화 '바비' 마고 로비,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킨 완벽한 월드투어 바비룩 화제!

"그레타 거윅 최고의 작품", "마고 로비와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는 태양처럼 빛났다", "영리하고 재밌는 영화" 등 폭발적인 글로벌 호평 속에 국내 개봉을 하루 앞둔 영화 '바비'가 1990년대 실제 바비 인형들의 의상을 오마주하며 영화와 캐릭터에 진심을 보여줬던 마고 로비의 월드투어 스타일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원제: Barbie, 감독: 그레타 거윅, 주연: 마고 로비, 라이언 고슬링, 아메리카 페레라, 케이트 맥키넨, 잇사 레이, 두아 리파, 시무 리우 외, 수입/배급: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19일 개봉을 앞둔 영화 '바비'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작품에서 제작과 주연을 모두 맡은 마고 로비의 완벽한 '바비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미국, 호주, 한국, 멕시코 등으로 이어진 '바비'의 월드투어 행사에서 오리지널 바비 인형이 입고 있던 다채로운 바비 룩이 화제를 불러모았다.

특히 지난 2일 한국에서 진행된 '바비'의 핑크 카펫에서는 1985년에 출시됐던 'Day to Night' 바비 인형의 핑크색 정장과 흰색 페도라 모자는 물론 화려한 저녁 드레스까지 두 벌의 의상을 선보이며 어는 때보다 '바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 국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마고 로비는 미국 LA에서 치러진 프리미어 행사에서 1960년의 'Solo in the Spotlight' 바비를, 멕시코 월드투어에서는 1992년의 'Earring Magic' 바비의 의상을 선보이는 등 1990년대에 출시된 바비 인형들을 꾸준히 오마주하며 현실 세계의 유일무이한 '바비'로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이에 팬들은 "마고 완전 바비 그 자체", "너무 예쁘다", "바비인형 옷을 따라 할 생각을 하더니 천재", "연기도 잘하는데 애티튜드마저 완벽", "왜 이렇게 아름답냐. 이 영화 꼭 봐야지", "밝은 에너지 너무 멋있다. 덩달아 행복해짐" 등 마고 로비의 영화와 캐릭터에 대한 진심은 물론 영화 '바비'의 개봉에 대해 애정 어린 기대감을 보내오고 있다.

만장일치 호평과 함께 울여름 핑크빛 바비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는 영화 '바비'는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바비랜드'에서 살아가던 '바비'가 현실 세계와 이어진 포털의 균열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겐'과 예기치 못한 여정을 떠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오는 7월 19일 전격 개봉한다.

최만식/기자



방탄소년단·스트레이 키즈·임영웅, 'TMA 베스트 뮤직 - 여름' 사전 투표 TOP3 등극! 치열한 팬덤 화력 입증

'더팩트 뮤직 어워즈'가 'TMA 베스트 뮤직 - 여름' 결선 투표를 시작했다.

지난 17일 정오부터 오는 31일 정오까지 2주 동안 팬앤스타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 TMA)'의 'TMA 베스트 뮤직 - 여름' 부문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TMA 베스트 뮤직'은 분기별로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다.

이번에 진행되는 'TMA 베스트 뮤직 - 여름' 부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OST를 제외하고 음원을 발매한 모든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지난 3일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 방탄소년단, 스트레이 키즈, 임영웅, 방탄소년단 슈가, 황치열, &TEAM, 세븐틴, 영탁, TNX, 김재환, 주현, 에이티즈, 강다니엘, 아이옴, 르세라핌, 샤이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엔하이픈, (여자)아이들, 에스파까지 상위 20팀이 결선 투표 대상으로 올랐다.

앞서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는 방탄소년단이 1위, 스트레이 키즈가 2위, 임영웅이 3위를 차지했으며 순위별로 1주간 휴대 맥스비전 광고, 2주간 합정역 CM보드 광고, 1주간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 광고 노출 특전을 받는다.

투표는 온라인 종합 매체 더팩트가 운영하는 아이돌 전문 종합 서비스 팬앤스타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별'과 '무지개별',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 참여하는 '동영상 투표'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결선 투표 1위 아티스트에게는 '2023 TMA 베스트 뮤직 - 여름' 트로피를 수여한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으로 웰메이드 찬사와 함께 매년 성공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왔다.

오는 10월 10일 시상식 개최와 함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추후 'TMA 베스트 뮤직 - 가을' 부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팬앤스타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만식/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조아용', 에버랜드 '레서판다(레시)'와 손잡았다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와 '캐릭터 협력 사업' 업무 협약... 콜라보 상품 40여종 개발·판매

“레시를 만나서 조아용”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를 활용한 상품이 올 연말에 출시된다.

시는 20일 시장 접견실에서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이하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해린 삼성물산(주) 리조트 부문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에버랜드가 내년이 '청룡의 해'라는 점에 착안,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 레시를 활용한 협력 상품을 개발하고자 시에 제안하며 이뤄졌다.

에버랜드가 자사의 캐릭터를 공공기관의 캐릭터와 함께 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에버랜드는 캐릭터 협력 상품 40여종을 개발해 올 연말부터 내년 말까지 에버랜드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협력 상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사용료로 받게 돼,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와 에버랜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 시 협력하고,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양 기관의 캐릭터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아용은 용인시를 상징하는 '용(龍)' 캐릭터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시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 27만명에게 '조아용' 이모티콘 16종을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 열었는데 배포 시작 28분 만에 소진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레시는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사는 레서판다(Lesser panda)로 깜찍한 외모와 귀여운 행동으로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에는 레서판다 세 마리(레시, 레몬, 레아)가 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에버랜드 레서판다(레시)와 조아용이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캐릭터와 민간캐릭터의 좋은 협력 사례를 만들고, 레시와 조아용이 많은 이들에

게 널리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은 “내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의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과 협업을 하게 돼 상당히 의미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와 에버랜드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함안군, 제11회 강주해바라기 축제 성황리 마무리

곳은 날씨에도 5만9000여 명 방문해

함안군은 범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11회 강주해바라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3만7000㎡ 규모 내 식재된 20만 송이의 해바라기를 보기 위해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만 90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특히,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작가들과 방문객들이 블로그와 SNS에 업로드한 사진과 동영상 보고 강주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기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이 마련됐다. 개막식 첫날 산인어린이집 원생 식전공연을 비롯해 함안농요 보존회에서 함안농요 길놀이 재현, 버스킹 공연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해바라기 단지 내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강주마을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번 강주해바라기 축제에 위해 마을 주민들은 해바라기 단지에 토양에 적절한 비료 및 새로운 종자를 선택했으며 기후에 맞는 파종법을 통해 우수하게 해바라기를 생산시켰다.

뿐만 아니라 조류피해를 막기 위해 방조망 작업, 수분유지 및 잡초 억제를 위한 비닐 멀칭 작업, 대나무 굴치사업으로 조망권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주해바라기 축제를 주최한 조철래 위원장은 “축제기간 동안 곳은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바라기 축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해바라기 축제를 통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주민들이 더욱더 화합·단결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민자치형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주해바라기 축제는 쇠락해가는 작은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2013년부터 개최했으며 그 결과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는 등 성공한 주민자치형 마을 축제의 모범사례가 됐다.

최덕수/기자



2023 제15회 통영연극예술축제 성료



통영시가 주최하고 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제15회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지난 16일 한국연극협회 통영시지부와 극단 박수골이 참여한 폐막극 '곰팡이들'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2008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제15회를 맞는 '2023 제15회 통영연극예술축제'는 2021년부터 3년째 경상남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창의적다양성'란 주제로 콘텐츠창작 TTAF스테이지,

이 시대가 주목할 TTAF스테이지, 가족극스테이지, 꿈사람나눔스테이지, 부대행사 등 32개 단체가 참여, 60개 행사로 꾸며져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재미와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폐막식에는 폐막작 공연과 감사패 수여, '2023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곳은 날씨에도 대극장을 찾은 많은 시민이 함께 배우들과 운영위원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연극제의 마무리를 함께 했다.

폐막극 '곰팡이들'(유보배 작, 장창석 연출)은 '2022년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 수상작으로 한국연극협회 통영시지부와 극단 박수골이 공동 창작해 지난 3월 '제41회 경남연극제'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 무대라는 제한적 공간의 한계를 장점으로 살린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감사패는 통영연극예술축제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연극협회 이금철 진주지부장이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연명 예술촌장 장치길 화가의 작품이 전달됐다.

2023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은 16편의 응모작 중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황수아 작가의 '까멜리아'가 선정됐으며 1천만 원의 창작지원금과 함께 내년 통영연극예술축제에 연극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까멜리아'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정국의 통영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과 반민특위 활동, 보도연맹 사건 등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첨예하고 아픈 부분들을 조명하고 반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전체적인 스토리와 플롯, 극중 인물들의 성격 구축의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수아 작가는 “통영 출신은 아니지만 '까멜리아'를 쓰면서 통영에서 숨쉬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이 느낌을 받아 작품을 쓰는 과정 자체도 귀한 선물이었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 살아있는 무대로 구현된다는 게 기대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용준/기자

밀양아리나에서 만나는 업사이클링아트 전시!

밀양문화관광재단 하계체험전시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 개최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월 15일 까지 밀양아리나 내 밀양 꿈꾸는 예술터에서 하계체험전시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을 개최한다.

제23회 밀양공예예술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최정현 작가의 개성 넘치는 업사이클링 조형예술작품 160점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오토바이 부품으로 만든 독수리, 다리미로 만든 펠리컨, 소화기로 만든 펄리, 페타이어로 만든 청설모 등의 작품이 준비돼 있다.

업사이클링아트란 재활용이라는 단순한 자원 활용을 뛰어넘어 버려진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 기존 자원이 가지고 있던 가치에 더해 심미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예술분야를 일컫는다.

최정현 작가는 주위에서 버려진 사물들을 작가만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작활동으로 관람객에게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예술가로 유명하다. 특히 로드킬, 침팬지 가족, 뜨거운 나라에서 온 펄리 등의 주요 작품들은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강조되는 오늘날 '업사이클링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느껴지던 현대미술을 관람객에게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은 사전 전화 신청이 필요하며, 단체관람 안내 등 전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밀양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최덕수/기자



변해야 산다. 확 바뀐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바가지 요금 없는 착한 축제 선보일 예정

김제시는 지난 20일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지평선축제에 변화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5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을 확정해 김제만의 멋과 맛,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억제되어 있던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대표 명예축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경문화 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행사장 공간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주민참여 확대 등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축제의 매력을 한껏 더할 계획이다.

주요 변화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가격 1만 원 이하 제한, 표준가격제 운영,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K-바가지 없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친환경 축제 실천을 위해 종이 인쇄물 축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착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운영 부분에서는 벽골제 중심으로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시내권 무대공연과 거리축제 등을 통해



축제 운영을 이원화하고 공간구성 부분에서는 벽골제 행사장에 청년 깔깔마당, 지평선 예코존, 생태숲 어린이 놀이

터를 신설하고 지평선 가든스퀘어와 만남의 광장 조성 등 행사장 공간 재구성을 통해 관광객의 재미와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신규프로그램으로 벽골제 짚신퍼레이드, LED 쥐불놀이, 버고 농경올림픽, 버고농경 VR체험, 짚공차기 풋살대회, 버고농 사금체험, 지평선 농업드론대회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그 밖에도 벽골제 햇볼퍼레이드, 벽골제 전설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지평선 농특산물 퍼포먼스 등 축제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그 밖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 깔깔마당을 운영해 먹거리와 체험, 문화공연, 프리마켓 등 축제만의 다양한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행태에 머물면 우리 축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창의정신으로 축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달라진 지평선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김제에 머물며 아름다운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